

15세기 국어의 안맺음씨끝 「아/어」, 「가/거/나」에 대하여

金 宗 泰

<目 次>

- | | |
|---------------------------------|-------------------------|
| I. 서론, 문제의 소재 | III. 두 형태소의 의미기능과 문법범주 |
| II. 결합 어형과 형태소 분석의
기준 및 그 한계 | IV. 변이형태의 교체 요건, 나머지 문제 |
| | V. 결 론 |

I. 서론, 문제의 소재

1-1. 한 형태소가 가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은, 단순히 ‘형태소의 의미 파악’이라는 표면적인 가치 이상의 뜻을 가진다. 특히 문제가 된 형태소의 의미가 어휘적(lexical)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functional)인 것일 때에는 그 형태소와 관련을 가진 문법범주 내의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형태소의 의미 파악은 그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15세기의 국어 안맺음씨끝(先語末語尾) 「아/어」, 「가/거/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제(tense), 상(aspect), 서법(modality)¹⁾ 등으로 여러 갈래에 걸쳐서 논의가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그 명확한 의미나 형태에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의문점을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형태소가 어떠한 문법범주에 속하는지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된 시제·상·서법체계는 잘못된 것이거나 불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본고는 이들 형태소의 의미와 형태에 관련된 몇 가지 의문점을 해명함으로써, 지금까지는

1) 국어의 서법은 안맺음씨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확인, 단정, 추측, 의지 등과 같이 주로 화자의 심리적인 측면에 바탕을 둔 것과, 맺음씨끝(마침법, 終結語尾)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서술, 의문, 명령, 청유, 감탄, 허락 등의 두 부류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되는 서법이란 용어는 형태소의 성격상 전자(前者)를 가리키는 것이다. 남기심(1978. p.21) 참조.

의된 15세기의 시상(時相) 체계 및 서법체제에 관한 여러 기술들을 보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2. 우선 앞서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 형태소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된다.

① 「아/어」와 「가/거/나」는 同一형태소인가? (즉, 변이형태의 관계에 있는가?)

② 양자가 동일형태소라면 그 교체조건은 무엇인가?

③ 양자가 동일형태소가 아니라면 서로 어떤 의미의 차를 가지는가?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제①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고찰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맥적 의미에 치중함으로써 한결같이 양자를 동일형태소로 취급하여 왔고²⁾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소로 인식은 하면서도 의미의 동질성을 굳게 믿은 나머지, 같은 문법범주에 포함시켜 다루어 왔다. 그 결과로 해명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파생되었고, 특히 이들 형태소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 즉 문법범주의 설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곤혹을 드러냈던 것이다.³⁾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주장들을 대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양자를 모두 時相범주에 속하는 형태소로 보는 견해

(완료, 끝남 등으로 해석. 이승욱, 나진석 등)

② 양자를 모두 서법범주에 속하는 형태소로 보는 견해

(확인법, 강조영탄법 등으로 지칭. 교영근, 허웅 등)

그러나, 이 연구들은 양자를 동일형태소로 취급하면서도 당연히 제기될 문제, 즉 두 형태 사이의 교체조건에 대한 의문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2)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진석(1971. p. 262): 「위에 든 /-거-/-어-/-나-/가 동일형태소의 변이형태임은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교영근(1981. p. 32): 「거」와 「어」는 統合語靜의 종류에 따라 交替되는 기능만 표시할 뿐 統辭·意味上的 기능에는 차이가 없다.

허웅(1981. p. 932): 「가/거/나」는 강조를 나타내는 접, 앞의 「아/어」와 같은 뜻을 가진 형태소이다.

3) 한 예로서 허웅(1981. p. 923)을 들면 다음과 같다.

(「아/어」는) 풀이의 힘을 더 한층 세게하고 다짐하는 씨끝인데 그 결과 이미 확정되고 완료된 상황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씨끝은 때때김법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으나 때때김과 관계없는 경우에도 쓰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강조법으로 보게 된다(밑줄 및 괄호 안은 필자 주).

음운환경에 따른 교체조건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⁴⁾ 양자를 동일형태소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많은 예외가 문헌자료에 나타나(뒤에 기술할 문헌자료 참조)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따로 떼어 내어 구체적으로 거론한 연구로는 오직 고영근(1980)이 있을 뿐인데, 여기에서의 시도도 하나의 시도 그 자체에 그쳤을 뿐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영근(1980)에서는 결합동사의 성격에 따라 自動詞, 形容詞 및 指定詞 곧 非他動詞에는 「거」를, 他動詞에는 「어」를, 「오-」(동사 ‘오다’의 어간) 밑에서는 「나」를 선택한다는 가설을 수립⁵⁾ 검증하였으나, 이 역시 문헌상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가 나타나므로⁶⁾ 결합동사의 성격에 따른 교체기준의 설정은 일단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1-3. 동일한 음운환경에서 형태가 다른 두 개의 형태소가 각각 분포할 수 있을 때, 이 양자를 동일형태소로 취급하는 것은 그들을 서로 다른 형태소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약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연성을 바탕으로 하여 「아/어」와 「가/거/나」를 서로 다른 형태소로 보고, 이 때에 제기되는 제③의 의문, 즉 양자의 의미상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선행연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현재까지 이들 형태소를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예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문헌자료를 통하여 나타난 실제의 어형들을 분석 고찰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양자의 형태에만 집착하여 일률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소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즉 「아/어」와 「가/거/나」는 그 결합어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소의 관계에 놓인 것도 있고, 동일형태소의 변이 형태의 관계에 놓인 것도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는 변이

4) 이기문(1972. p. 163): ‘거’는 y, ㄹ, 및 繫辭 뒤에서는 ‘-어-’가 되었다.

5) 고영근(1980, p. 57) 참조.

6) 그 예외를 다 들 수 없을 정도이나. 몇 가지만 제시해 본다(점은 필자 주).

○ 타동사에 「거」가 쓰인 경우

호마 當時 法을 쓰거니...(杜 16: 17)

오직 새 사르미 우수를 보거니...(杜 8: 66)

功德을 國人도 숭거니...(龍: 72)

○ 자동사에 「어」가 쓰인 경우

大箭 호 나태 突厥이 놀라 수하니...(龍: 47)

佛大師 | 호마 涅槃호산디 닐의 디나샤(釋釋 23: 40)

형태의 관계에 놓인 것이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기술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늘어날 셈이 된다.

- ① 「아/어」와 「가/거/나」가 서로 다른 형태소의 관계에 있는 경우와 변이 형태의 관계에 있는 경우. 즉, 그 요건과 기준에 대한 해명.
- ② 서로 다른 형태소의 관계에 있는 「아/어」와 「가/거/나」의 의미상의 차이.
- ③ 서로 변이형태의 관계에 있는 「아/어」와 「가/거/나」의 교체조건.

1-4. 본고에서는, 15세기의 언어자료를 분석 해명하는 한 방법으로서 현대 국어에서의 언어능력을 15세기의 문헌자료에 투영시키는 방법을 부분적으로 취하였다. 그것은 문헌자료의 피상적 관찰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나, 또는 언어현상 기술상의 비합리성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노력이다.

우리가 문헌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대 국어의 언어능력을 가진 처지에서 전시대의 언어를 바라보는 모습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현대 국어의 언어능력에 의한 선입견 때문에 전시대의 국어에 대한 이해를 그르칠 위험이 따르므로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인 연구방법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 같고, 또 아직도 그 타당성이나 신중성의 한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경계를 그어 단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시대의 언어현상에 대한 합리적 해명은 문헌자료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표면적인 언어현상은 하나의 의미가 어떤 형태의 소리로 실현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내면의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헌자료에만 의존하는 방법이 그 증거의 확실성으로 해서 높은 신빙성을 가지나, 결국은 표면적인 언어사실밖에 말해줄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언어 사실을 논리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언어현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내면구조, 즉 내재하는 의미가 음선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대한 연역적인 추리가 불가피한 것이며, 그 출발점은 역시 현대 국어의 언어능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5. 본고에서 사용한 인용문헌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 헌 명	연 대	약 호
龍飛御天歌	1445A. D.	龍
釋譜詳節	1447A. D.	釋譜
月印釋譜	1459A. D.	月釋
楞嚴經諺解	1462A. D.	楞
禪宗永嘉集諺解	1464A. D.	永嘉
金剛經諺解	1482A. D.	金三
內訓(日本蓬左文庫本)	1475A. D.	內訓
杜詩諺解(初刊本)	1481A. D.	杜
老乞大(初刊本)	1510년대	老

Ⅱ. 결합 어형과 형태소 분석의 기준 및 그 한계

2-1. 문헌자료에서 「아/어」, 「가/거/나」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며, 대개는 다른 여러 어형들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필자가 조사한 어형을 편의대로 분류하여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어」와 「거」로 대표하여 기술한다.⁷⁾ 이것을 <表 I>이라고 부른다.

<表 I> 「아/어」계		「가/거/나」계	
A 형	① 어	B 형	⑫ 거
	② 어니(어지니)		⑬ 거니(거지니)
	③ 언		⑭ 잔
	④ 어서		⑮ 거시
	⑤ 언다		⑯ 으려(으시려)[필자주 : 으리+거]
	⑥ 어리		⑰ 건넌(건넌)
	⑦ 어리히		⑱ 습거니
	⑧ 스바니		⑲ 르얼디니[필자주 : 거+르디니]
	⑨ 스바		⑳ 거히
	⑩ 어히		
	⑪ 스바히		

7)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형은 모두 나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문헌의 정황으로 미루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어형이라도 실질적인 언어 자료가 없으면 넣지 않았다. 위의 어형들을 뽑아내는 과정에는 허웅(1981)에서 크게 도움을 받았다. 지면관계로 예문을 일일이 드는 것은 생략한다. A~F까지의 분류 기준은 뒤에 기술하기로 한다.

C형	㉑	에
	㉒	언마론(어신마론)
	㉓	어니와(어시니와)
	㉔	어늘(어시늘)
	㉕	어든(어시든)
	㉖	에히
	㉗	언명(어신명)
	㉘	어나

E형 ㉙ 어소 ㉚ 어저

F형 ㉛ 어라

D형	㉑	게
	㉒	건마론(거신마론)
	㉓	거니와(거시니와)
	㉔	거늘(거시늘)
	㉕	거든(거시든)
	㉖	으려니와[필자주 : 으리+거니와]
	㉗	으려늘[필자주 : 으리+거늘]
	㉘	으려마론[필자주 : 으리+건마론]
	㉙	건명
	㉚	거나

㉛ 거라

위에 나열된 어형들은 너무나 복잡하여 「아/어」, 「가/거/나」의 의미를 직접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 두 형태소에 결합되어 있는 다른 형태소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이 두 형태소는 시제, 상, 또는 서법과 관련된 형태소이므로 이러한 문법범주와는 무관한 존재법에 관련된 어형들을 일단 제거한다. 다음으로, 이 두 형태소에 인접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의미의 영향관계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형태소는 제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때, 제거할 수 있는 형태소와 제거할 수 없는 형태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제거할 수 있는 형태소: 습, 시, 히

② 제거할 수 없는 형태소: 니, ㄴ, 리, ㄹ⁸⁾

위의 기준에 따라 <表 I>의 여러 어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제된 <表 II>를 얻을 수 있다.

<表 II> 「아/어」제

A형	①	어
	②	어니[필자주 : 어+니]
	③	언[필자주 : 어+ㄴ]
	④	어리[필자주 : 어+리]

「가/거/나」제

B형	⑤	거
	⑥	거니[필자주 : 거+니]
	⑦	건[필자주 : 거+ㄴ]
	⑧	으려[필자주 : 으리+거]

8) 「니」, 「리」, 「ㄴ」, 「ㄹ」 등은 공식적으로 상이나 서법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소임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 따라서 이들이 그 앞뒤에 연결되는 「어」, 「거」에 의미상의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9) <表 I>의 ㉗ 「건명」(「건멘」)은 그 이어지는 「ㄴ멘」이 선행하는 「거」에 의미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또 ㉛의 「ㄹ덜디니」는 「ㄹ디니」의 「ㄹ」이 그 뒤에 이어지는 「디니」에 유착되어 있어서 「거」에 적

C형	⑨	에	D형	⑬	게
	⑩	언마론		⑭	전마론
	⑪	어니와		⑮	거니와
	⑫	어늘		⑯	거늘
	⑬	이든		⑰	거든
	⑭	언명		⑱	전명
E형	⑮	어나	F형	⑲	거나 ¹⁰⁾
	⑳	어스		㉑	어라
	㉒	어저		㉓	거라

2-2. 위의 <表 II>를 보면서 일단 A~F의 6종류로 분류한 기준을 밝힐 필요를 느낀다. 그리고 이 기준은 위에 제시된 여러 어형들의 형태론적 구조를 밝히는 중요한 기준도 되는 것이다. 위의 분류기준은 「아/어」, 「가/거/나」가 각각 그들과 결합되어 있는 다른 어형들과의 사이에서 이루고 있는 통합관계(syntagmatic relation) 및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¹¹⁾에 바탕을 두고 마련된 것인데, 이는 형태소 분석의 한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 기준에 따라 각각의 어형들과 관련된 형태소분석의 한계를 밝혀 보기로 한다. 이 작업을 통하여 위에서 A~F의 6종류로 분류한 이유가 저절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편의상 계열관계의 점증을 위한 교체형태소는 「더」를 임의로 사용한다.

먼저 A, B의 두 어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表 II>에서 ②와 ⑥은 통합관계로 보면 「어」, 「거」가 제외된 「나」가 단독으로 쓰이고, 계열관계로 볼 때, 위에서 임의로 정한 「더」를 「어」, 「거」 자리에 넣으면 「더니」형이 성립되는데 이 어형은 공식적으로 이 시대에 존재한다. ③과 ⑦에서도 이에 준

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역시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얼」, 즉 「어+ㄹ」형이 보일 법하나 용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10) <表 I>에서 ㉒, ㉓, ㉔을 제거한 것은 이들이 각각 ㉒, ㉓, ㉔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11) 이 개념은 de Saussure에 의하여 제기되어,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주로 한 언어의 어휘체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통합관계는 표현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위들이 상호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또 계열관계는 표현을 이루고 있는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이 단위와 대치될 수 있는(substitutable) 다른 단위들과의 상호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대치될 수 있는 단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한 계열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결국 형태론과 음운론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었고, 국어에서도 형태소의 분석은 대체로 이러한 개념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하겠다. Lyons(1977. p. 240)참조

하여 「ㄴ」이 단독으로 쓰이는 형이 공시적으로 존재하고, 「ㄷ」형도 공시적으로 존재한다. 또 ④와 ⑧은 각각 「어」, 「거」가 제거된 「리」가 단독으로 쓰이는 형이 공시적으로 존재한다.

바꾸어 말하면, A, B의 어형들은 각각의 어형에서 「어」 또는 「거」를 분리해 낼 수 있고, 또 「어」, 「거」가 분리되어 나온 뒤의 나머지 어형(즉 「니」, 「ㄴ」, 「리」)도 독립된 형태소로서의 구실을 하므로, 용언에 직접 결합되어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니」, 「하ㄴ」, 「하리」 따위의 어형이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A, B의 ②③④, ⑥⑦⑧은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된 어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니, 어+ㄴ, 어+리, 거+니, 거+ㄴ, 리+거)

그러나, C, D, E형에서는 A, B형과는 달리, 우선 그 통합관계를 볼 때, 그 결합 어형에서 「어」, 「거」를 분리해 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 「거」가 분리된 나머지 어형이 용언의 줄기에 결합되어 쓰이는 용례가 공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 「거」가 분리된 「하이」, 「하마르」, 「하니와」, 「하닐」, 「하든」, 「하딩」, 「하나」, 「하소」, 「하져」 따위의 어형을 당시의 문헌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C, D, E형에서의 「어」,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다른 어형과 완전히 유착되어서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의 형태소를 이루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어」, 「거」는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거나, 또는 의미의 변질을 겪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 B형에서의 「어」, 「거」와는 비록 형태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¹²⁾

그리고 E형을 따로 떼어 낸 것은 이들이 애초에 時相이나 서법과 무관한 형태소임이 문맥의 정황으로 보아 그대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다른 어형과는 달리 「어」계와 「거」계의 대칭적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F형의 「어라」와 「거라」는 통합관계로 보아 「라」가 단독으로 쓰이고, 계열관계로는 「더라」형이 공시적으로 존재하므로 A, B형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어라」, 「거라」가 명령형인데 비하여 「더라」는 서술형이라는 사실이다. 즉 명령형 「어라」, 「거라」의 「어」, 「거」는 이미 명령형 종결어미인 「라」의 의미에 유착되어 있으므로 「어」, 「거」의 본래 의미를 지속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12) 이것은 15세기보다 앞선 시대에 「어」와 「거」가 같은 형태소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어」와 「가/거/나」의 정확한 의미의 차이를 비교하여 밝히려면 그 대상이 되는 자료는 오직 A, B의 두 어형에 국한시켜야 하는 것이다. 즉 A와 B는 서로 다른 형태소이며, B형이 비록 다른 요인에 의하여 A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¹³⁾ 이들 즉 A형과 B의 변이형은 형태만 일치할 뿐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소임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C와 D는 서로 같은 형태소의 변이형태라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들 사이에는 애초부터 의미의 차이란 있을 수 없다.

F형의 「저라」, 「어라」도 역시 변이형태의 관계이다. 종래의 연구들이 「아/어」와 「가/거/나」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같다고 보거나 또는, 동질적인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동일형태소로서 변이형태의 관계에 있는 C형과 D형(이들은 양적인 면에서 A, B형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이 보여주는 同意性에만 집착한 나머지 A, B형과 C, D, E형의 형태소 구조상의 이질성을 관독해 내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자료의 분석 관찰에서 피상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약간의 오류는 실제로 엄청나게 큰 오류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본고의 전개과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아/어」와 「가/거/나」에 대한 본고에서의 기술이 타당하다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15세기의 時相체계, 서법체계는 필연적으로 대폭적인 수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3.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어」, 「가/거/나」의 의미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오직 A, B형의 자료에 국한하여 이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15세기의 언어자료에서 A, B형에 해당하는 것을 임의로 뽑아서 제시한다. (괄호 안의 해석과 접은 필자 주)

「아/어」계(A형)¹⁴⁾

① 識이 흥아 드로물 니버니(임었으니) 뒤 識 드로물 알리오.

13) 이 때의 다른 요인이란 결국 음운환경을 말하는 것이 된다(주④ 참조). 실제의 검증결과 B형의 어형들은 음운적 요인에 의하여 A형과 똑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예가 많았다(뒤에 기술하는 예문 참조).

14) ⑥(버려시니), ⑧(שר라노), ⑬(그쳐시니), ⑭(아란다), ⑮(살연), ⑰(흥찬디)는 그 음운환경으로 보아 「가/거」의 변이형으로 볼 수도 있으나 text의 상황에 따라

- (識이 已被聞하야니 誰知聞識하리요)(楞 3 : 41)
- ② 네 ㅎ마(釋迦를) 만나스하니(만났으니) 前生7罪業을 어루 버스리라(月釋 2:62)
- ③ 네(옛날에) 祿山이 亂을 몰라니(몰랐으니) 오늘 서르 불 주를 엇디 알리오(杜)
- ④ 大箭 ㅎ 나테 突厥이 놀라스하니(놀랐으니) 어찌 머리 威不及하리잇고
片箭 ㅎ 나테 島夷 놀라스하니(놀랐으니) 어찌 구더 兵不碎하리잇고(龍 : 47)
- ⑤ 四海를 平定하샤 길 우희 糧食 니저니(잇었으니) 塞外北狄인들 아니 오리잇가
四境을 開拓하샤 섬 안해 도죽 니저니 徼外南蠻인들 아니 오리잇가(龍 : 53)
- ⑥ 禮義를 앓기샤 兵馬를 머추어시니(멈추시었으니) 徼外南蠻인들 아니 오리잇가
才勇을 앓기샤 金刃을 버려시니(버리시었으니) 塞外北狄인들 아니 오리잇가
(龍 : 54)
- ⑦ 四祖 | 便安히 몬 겨샤 현 고돌 울마시뇨(웁으시었느뇨)(龍 : 110)
- ⑧ 여원 못 가운데 몸 커 그우닐 龍을 현맛 벌애 비늘을 썬라뇨(빨았느뇨)
(月釋 2 : 47~48)
- ⑨ 엇데 아드리 藥을 머거뇨(먹었느뇨)(月釋 21 : 219)
- ⑩ 내 모를 엇데 드를마터 복수디 몬관디 내 아드리 목수를 일케 ㅎ야뇨(하었느뇨)
(月釋 21 : 219)
- ⑪ 엇던 因緣으로 일후를 常不輕이라 ㅎ야뇨(하었느뇨)(釋譜 19 : 29)
- ⑫ 如來人기 현맛 衆生이 머리 좇스하뇨(조아렸느뇨)(月釋 2 : 48)
- ⑬ 道上애 僵尸를 보샤 寢食을 그쳐시니(그치시었으니) 旻天之心애 기 아니 쏜다
시리(龍 : 116)
- ⑭ 여섯 놀이 디며 다섯 가마괴 디고 빗근 남글 느라 나마시니(넘으시었으니)
(龍 : 86)
- ⑮ 王入中애 尊하신 王이 업스시니 나라히 威神을 일히다(있었다)(月釋 10 : 9)
- ⑯ 네 머그라 우리 밥도 머거다(먹었다)(老上 : 57)
- ⑰ 닐헛 소시에 네 快樂을 견갓 ㅎ안다(하였는가)(釋譜 24 : 28)
- ⑱ 하늘 마시치시며 싸 마르치샤물 아란다(알았느냐) 모릅는다(金三 2 : 60)
- ⑲ 죽다가 살언(살아난) 百姓이 아드넝과 袞服 니괴스넝니(龍 : 25)
- ⑳ 갓갓 소리톨 내야 닐오디 설볼써 衆生이 正훈 길홀 일히다(있었다)하며
(釋譜 : 23)
- ㉑ 佛大師 | ㅎ마 涅槃하산디(열반하신 지) 닐웨 디나샤(釋譜 2840)
- ㉒ 아들과 여희연디(이별한 지) 쉬나몬 히어다(月釋 13 : 9)

필자가 생각하는 「아/어」의 의미에 상응하므로 「아/어」계에 넣었다. 「아/어」의 의미를 상론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가 밝혀질 것이므로 자세한 논의는 뒤로 미룬다.

「가/거/나」제(B형)¹⁵⁾

- ① 전 벽리 현 버늘 린돌 三十年 天子ㅣ 어시니(이시니) 모던 췌를 일우리릿가.
石壁이 훈 잣 수린돌 數萬里스 니미어시니(남이시니) 百刃虛空에 나리서리릿가
(龍: 31)
- ② 功德을 國人도 숨거니(말하니) 漢人 막스미 엇더하리릿고(龍: 72)
- ③ 학마 나며 업수미 업거니(없으니) 엇데 가며 오미 이시리오(月釋序: 2)
- ④ 大乘은 世界 맞키도 오히려 法性色이 잇거니(있으니) 이 四天이 한갓 뷔리여
(月釋 2: 37)
- ⑤ 더 나라해 惡道人 일홈도 업거니(없으니) 학몰며 眞實人 새 이시리여
(月釋 7: 67)
- ⑥ 학마 그 體 업거니(없으니) 엇데 그 名이 이시리오.
既無其體어니 豈有其名이리오(永嘉下: 95)
- ⑦ 학마 當時엿 法을 쓰거니(쓰니) 님 이 프들 더너서 배프리오(杜 16: 7)
- ⑧ 오직 새 사르미 우루를 보거니(보니) 엇데 벧 사르미 우루를 드르리오(杜 8:66)
- ⑨ 큰 흠길헤 잇거니(있으니) 어느 구슬 막트리오(杜 8: 62)
- ⑩ 空이 제 알어니(아니) 엇데 네 入에 브트리오
空이 自知어니 何關如入하리오(楞 3: 10)
- ⑪ 학마 주글 내어니(나이니) 子孫을 論議하리여(月釋 1: 7)
- ⑫ 우리는 하늘히오 그릭는 當時로 사르미어니(사람이니) 도로 가 사르미 목숨 브
리고 다시 이에와 나야아 살리라(月釋 7: 12)
- ⑬ 내 상네 이 아드를 思念하디 불 주리 업다니 몬득 제 오니 내 願에 甚히 맞거
다(맞다)(月釋 13: 15)
- ⑭ 내 천량 庫藏을 이제 맞들디 잇거다(있다)(月釋 13: 15)
- ⑮ 몬득 來晝를 바드니 마지 분별 업거다(없다)(永嘉下: 107)
- ⑯ 아들과 여회연디 쉬나몬 히어다(해다)(月釋 13: 9)
- ⑰ 내...天帝人命을 받츠와 擁護컨디(옹호한 지, 옹호하여 온 지) 오라거다(오래다)

15) ①, ⑥의 한문토 부분, ⑩, ⑫, ⑮, ⑰, ⑲, ㉑ 등은 그 음운환경 때문에(주④ 참조) 「이」 삭제된, 「거」의 변이형태로서의 「어」로 본다. 이들은 「아/어」제로 볼 수도 있으나 문맥의 정황으로 미루어, 필자가 생각하는 「가/거/나」의 의미에 상응하므로 여기에 포함시킨다. 또 「아/어」제의 「여회연디」의 어형에서 추찰할 수 있듯이, 만약 이들의 기저형이 「거」가 아닌 「어」였다면 「ㅣ」음의 아래라는 음운환경 때문에 ①, ⑥의 한문토 부분, ⑫, ⑮, ⑰, ⑲, ㉑ 등은 모두 「어」로 실현되었을 것이다. 또 ㉒, ㉓, ㉔ 등은 현대어로 「다하였다」, 「다달았다」, 「비었다」로 번역될 수 있으나 각각의 행위가 끝났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중생의 복이 다한 상태」, 「7일이 지난 상태」, 「세체가 빈 상태」등을 표현한 것으로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楞 7 : 62)

⑮ 함마 비 오려다(오겠다)(月釋 10 : 85)

⑯ 아가…이내 몰라 成等正覺 나래야 만드기 마조 보려다(보리랴)(月釋 8 : 101)

⑰ 城 안해 사르미 다 와도 몬 드스불려어니(못들어갈 것이니) 너희 어느 드스불
따(釋譜 23 : 23)

⑱ 설볼써 衆生이 願이 다오거다(다하였다) 하시고(釋譜 23 : 28)

⑲ 닐래 함마 다돈거다(다달았다)(釋譜 23 : 28)

⑳ 갓갓 소리톨 내야 닐오디 설볼써 世界 비어다(비었다)하며(釋譜 23 : 18)

Ⅲ. 두 형태소의 의미기능과 문법범주

3-1. 이제 위의 예문을 근거로 하여 「아/어」제와 「가/거/나」제에 결합된 동사의 의미를 살펴 봄으로써 「아/어」, 「가/거/나」의 의미의 차이 및 문법범주를 밝혀 보기로 한다. 여러 논의를 거칠 필요도 없이, 위의 자료에 나타난 「아/어」는 현대어의 「았/었」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시제로는 과거, 相으로는 완료에 주로 대응하는 형태소임을 뜻하는 것이다. 즉 「아/어」에 결합된 동사의 행위는 발화시 이전에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① 심리적으로 발화시와는 상당한 시간적 거리를 가지고 완료된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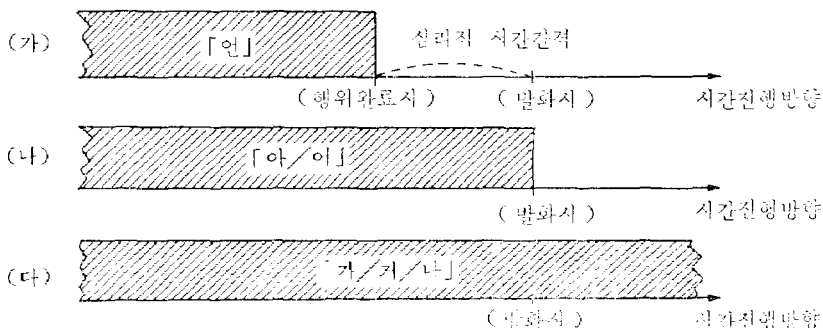
(특히 「언」결합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⁶⁾)

② ‘완료’라는 의식과 무관한 과거의 사실이나 발화시 이전에 완료된 행위에 비하여 「가/거/나」에 결합된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완료나 미완료, 또는 과거, 현재, 미래 따위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즉 「아/어」가 주로 완료된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음에 대하여 「가/거/나」는 이들 時相과는 무관하게 두루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가/거/나」에 결합된 동사는 불변의 진리, 기정 사실, 현재의 상황,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상황, 미래에 수행될 행위 등 광범위한 사실에 대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확인, 인정 또는 강조하

16) 이는 완료성을 나타내는 두 형태소 「어」와 「나」이 겹쳐졌으로써 단순한 완료의 개념보다는 시간적으로 더 앞서서 완료된 행위의 표현, 즉 이른바 과거완료의 개념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닌가 한다.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형태소와 時相의 호응관계를, 위의 서술을 기초로 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2. 현대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제와 相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에 비하여,¹⁷⁾ 어떠한 時相을 가진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에 대한 화자의 발화태도를 나타내는 형태소(modal)는 이들 時相과는 무관하게 쓰인다. 즉 서법형태소는, 時相형태소 때문에 분포상의 제약을 받는 일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이것은 서법형태소와 時相형태소가 동일한 평면 위에서 비교되어질 수 없는 관계, 즉 의미의 이질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본다면, 국어에서는 하나의 형태소가 時相과 서법을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주 17)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문법범주의 설정에서 학자들간의 상당한 견해의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문법범주(時相범주, 서

17) Lyons는 이러한 현상이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시제와 상, 시제와 서법은 각각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But it must be recognized that at this point there is not, and can not be, in universal grammar any sharp distinction between tense and aspect, on one hand, or between tense and modality, on the other. Lyons(1977. p. 690)참조
국어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장은 있어 왔으나 학자들 간의 일치된 견해는 볼 수 없다. 그 결과 문법범주의 설정이나 그 기술상에 나타나는 용어의 선택 등에서 상당한 혼란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대별하면, 시제·상·서법을 인정하는 견해, 시제를 부인하고 상과 서법만을 인정하는 견해, 시제와 상을 부인하고 서법만을 인정하는 견해 등이 있다.

법범주)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¹⁸⁾ 또 각각의 법주를 나타내는 형태소의 배열순서를 살펴보면 이 두 문법범주가 화자나 청자에게 순차적인 계기성을 가지고 인식되어 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상과 서법의 형태소가 공존할 때(예를 들면 현대어에서의 ‘있겠’형) 그 배열 순서를 보면 時相형태소가 서법형태소에 선행한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심리적으로, 행위의 수행상태가 밝혀진 다음이라야 이에 대한 화자의 판단 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므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어의 변천을 살펴보면 형태소의 배열 순서가 변화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예를 들면 ‘હ더시니’ > ‘હ시더니’), 적어도 시상형태소와 서법형태소의 배열 순서가 바뀌는 변화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이와같은 일반적 당위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기술한 동사의 의미와의 호응이나, 형태소 배열상의 일반적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아/어」가 時相법주에 속하는 형태소임에 대하여 「가/거/나」는 서법법주에 속하는 형태소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단정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첫째, 「아/어」형이 時相표시의 형태소임은 3-1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지만, 이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에서 받고 있는 분포적 제약을 살펴보면 이것이 더욱 뚜렷해진다. <표 Ⅱ>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리」형은 존재하나 「리어」(「리거」의 이형태가 아님)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리」의 의미는 현대어의 「있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15세기의 「리」는 현대어 「겠」의 소급형이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서법형태소에 속하는 것이다. 「리」가 서법 표시형태소라면 상표시의 「아/어」가 서법표시의 「리」의 뒤에 분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현대어에서 「졌었」형이 존재할 수 없음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¹⁹⁾

또 「리」가 현대어의 「겠」과 마찬가지로 時相 표시의 파생적 기능을 가진다면, 이 때의 의미는 미완료 또는 미실현의 相이 될 것이다. 이 때에는 완

18) 본고에서의 時相이란 용어는 시제(tense)와 상(aspec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법법주와의 구분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며, 결코 시제와 상을 하나의 문법범주 속에 묶을 수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기 때문이 아니다. 국어에서 시제와 상의 문법범주가 별개로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일단 덮어 두기로 하려는 것이다.

19) ‘먹졌었다’형이 현대어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으나 강변에 불과하다.

로 표시의 「어」와 미완료 표시의 「리」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완료되었으면서 동시에 완료되지 않은 행위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리」의 분포적 제약을 통하여 「가/거/나」의 문법범주를 서법으로 결정된 위의 기술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리」는 서법표시 형태소 「겠」의 소급형임은 주지하는 바이며, 따라서 상표시의 「아/어」 뒤에서는 분포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거/나」 뒤에는 위치할 수 없다.

따라서 「거리」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태소 배열순서에 대한 앞의 논의를 기초로 한다면, 「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가/거/나」가 서법형태소이기 때문이다. 「리」나 현대어의 「겠」이 본질적으로 서법범주에 속하는 형태소이면서 相표시의 파생적 기능을 가지는 데 비하여 「가/거/나」는 오직 서법만을 표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여기에서 「리어」(「리거」의 이형태)형의 존재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한다면 「리」와 「거」는 각각 「추측」과 「확인」의 서법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교영근(1981. p. 116)에서는 「추측확인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같은 문법범주에 속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형태소가 공기(共起, co-occurrence)할 수 있는 언어상황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의미상의 대립을 가진 두 형태소가 같은 문법범주에 속하면서 실제의 언어상황에서 공기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즉 「리거」의 경우도 추측하면서 확인하는 태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완료되었으면서 동시에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할 수 없었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리거」에서의 「리」는 서법표시 형태소로 볼 수가 없다. 이 때의 「리」는 그것이 비록 본질적으로 서법표시의 형태소라 할지라도 상 표시의 파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서법표시의 기능, 즉 「추측」의 의미가 주된 기능이 아닌 것이다.²⁰⁾

20) 국어에서의 相의 종류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서 있지 않다. 다만 시제와의 깊은 관련을 고려한다면 완료, 진행, 미완료(또는 미실현)등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이때의 미완료는 시제에서의 미래와 호응하는 것으로서 Comrie (1978)에서의 prospective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이것을 전망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용어의 성격이 화자의 태도, 즉 서법표시의 인상이 짙으므로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의 예문에서의 「리」는 미완료(미실현)의 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Comrie(1978. pp. 64~65) 참조.

a. ㅎ마 비 오려다(오리거다)

b. 城 안한 새르미 다 와도 못 드스불려어니 너희 어느 드스불따.

위의 예문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a는 비가 올 것같이 예견되는 상황(相)을 확인하는 태도(서법)

b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相)을 확인하는 태도(서법)

3-3.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어」와 「가/거/나」 사이의 상호 공존 제약이다. 자료에서는 「어거」형이나 「거어」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어」제와 「거」제의 문법범주가 서로 다르다면 양자가 공존하지 못할 이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同一 범주에 속하는 형태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거어」형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의 형태소 배열순서에 관한 논의로써 자명해진다. 또 「어거」형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아/어」에 의하여 완료되었다고 파악된 행위는 이미 화자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므로 굳이 확인의 형태소를 요하지 않고도 확인의 태도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아/어」에는 「가/거/나」에 상응하는 서법표시의 파생적 기능이 있는 것이다.

a. 舍利弗이 이거여다. (月釋 6:31)

위의 예문은 舍利弗이 이긴 행위가 발화시보다 과거에 이루어졌으며(시제), 이긴 행위가 완료되었으며(相), 화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 또는 단정한다는 태도(서법)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현대어에서의 「왔/였」이 이 세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령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발화는, 밥을 먹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발화시보다 과거에 이루어졌으며, 밥을 먹는 행위가 완료되었으며, 화자가 이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태도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IV. 이형태의 교체요건, 나머지 문제

4-1. 위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아/어」와 「가/거/나」의 교

체에 대한 논의의 대상은 오직 B, C, D, F 형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B의 이형태로서의 「아/어」형은 A와는 형태상의 일치만이 있을 뿐 실제로는 다른 형태소임에 대하여, D의 이형태인 「아/어」형은 바로 C 그 자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²¹⁾ E형은 교체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문헌상에도 그 교체형을 발견할 수 없다. 또 F형은 결합동사의 종류에 따라 교체되는 어형임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논의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교체 대상이 되는 「어/거」의 교체요인이, 가장 일반적인 상식의 선이라고 할 음운적 요인,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즉,

‘확인’ 또는 ‘인정’의 서법을 표시하는 형태소 「가/거」는 ㄹ, 이중모음에서 후행하는 「ㅣ」[y] 및 繫詞 ‘이’ 아래에서 「아/어」로 변형을 취한다. 다만 ‘오다’의 어간 아래서는 일단적으로 「나」를 취한다.

위의 같은 교체조건은 이미 거론된 바 있으나(주 4) 참조), 다만 A형의 「아/어」와의 구분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성과 타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것이다.

4-2. 본고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했을 때 위와 같은 일반적 교체조건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몇 개의 예외를 발견할 수 있다.

- a. 王이 닐오디 어더 보스랄까(釋譜 24 : 23)
- b. 모뎨 보빅로이 너교디 구술마티 하야 저허 당홀디니 값간이나 믈술 노하 퍼아려(內訓上 : 2)
- c. 지우워 뎨마며 뎨마니 어루 조심타 아니 하야리여(內訓序 : 9)
- d. 하뎨며 나는 하올어미라 能히 玉코홀 믈수뎨며 느느리롤 보아리여(內訓序 : 8)

a는 阿育王이 자신의 공양을 받기 위하여 모여든 10만의 比丘들 중에서 가장 上座에 앉은 寶頭盧를 王 자신이 만나 볼 수 있을지를 耶舍에게 묻는 것이므로 ‘보스랄까’는 ‘볼까(뵈을까)’로 풀이되며, b, c, d도 저자인 인수대비가 내명부의 모든 여성들에게 훈육을 목적으로 기술된 것으로서, 문맥의 정황으로 미루어 각각 ‘퍼졌는가’ ‘하졌는가’ ‘보졌는가’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 때의 「아」는 앞서의 A형의 「아」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21) 이 경우 기저형은 「거」형(D형)으로 잡고 ㄱ삭제의 규칙을 유도하는 것이 그 한때의 경우보다 설명이 용이할 것이다.

또 음운 환경으로 보아 「가/거」의 변이형으로 취급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의 형태소 배열과 형태소의 파생적 기능에 관한 논의로서 그 해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형태소의 배열순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예문은 현대어에서 취한다.

배열 A형 : 어간+시상형태소+서법형태소+어미 보기) 먹었겠다.

배열 B형 : 어간+시상형태소+어미 먹었다.

배열 C형 : 어간+서법형태소+어미 먹겠다.

위의 배열 B형에서는 시상형태소가 서법도 동시에 표현하는 파생적 기능을 가지며, 배열 C형에서는 서법형태소가 시상도 동시에 표현하는 파생적 기능을 가진다. 위의 예의들은 문맥의 상황에 따른 풀이에서 추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배열 C형에 속하는 것이다. 즉 「아」에 후행하는 「리」 또는 「르」이 ‘추측’의 서법을 나타냄과 동시에 미완료 또는 미실현의 相을 표현하는 파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어의 안맺음씨끝(先語末語尾)에는 時相, 서법 및 존대법을 나타내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또 위의 예문의 「아」가 존대법과 관련된 형태소가 아님은 문맥의 상황으로 보아 명백하므로 이 형태소에는 어떠한 안맺음씨끝의 기능도 부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때의 「아」는 안맺음씨끝이 아닌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이 때의 「아」가 어떤 종류의 형태소인지 한 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형태소의 분포 위치와 문맥적 의미, 즉 장차 닥아올 일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피력한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 또는 강조의 접미사로서 어간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보아서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4-3. 「아/어」를 時相범주에 속하는 형태소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문제점을 고려에 넣어서 15세기의 時相체계를 기술해야 할 것이다.

a. 舍利弗이 이거여다(月釋 6:31)

b. 舍利弗이 이거니라

b는 실제 문헌상의 자료로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15세기 당시의 문헌 정황으로 미루어 충분히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어형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니」를 ‘완료’나 ‘과거시제’의 형태소로 취급해 왔다. 그것은 본고에서 파악했던 「어」의 의미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와 「니」를 동일형태소로 볼 수는 없다. 동일한 음운환경에서 동일한 의미기

능을 가진 형태소가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동시대에 공존한다는 것은 언어의 일반적 원리로 보아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양자를 서로 다른 형태소로 본다면 위의 예문 a, b는 어떠한 의미상의 차이를 가지는가? 필자는 이것을 하나의 문제로 제기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다만 ‘이리어다’는 ‘이졌다’로 보아, 좀 더 직설적, 단정적 표현이며, ‘이이니라’는 ‘이진 것이다’처럼 원리나 원칙적 선언의 형식과 같이,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는 표현 방법이 아닌가 본다.

이것은 현대어에서, ‘하였다’와 ‘한 것이다’, ‘한다’와 ‘하는 것이다’, 또 ‘하겠다’와 ‘할 것이다’ 등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미세한 차이에 준하여 연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어」를 時相 표시의 기본적인 형태소의 하나로 취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된 15세기의 時相체계는 불완전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서법체계의 기술에서 「가/거/나」를 포함시켜야 함도 이와 마찬가지다.

V. 결 론

1. 15세기 국어에서의 「아/어」, 「가/거/나」는 그 결합되어 있는 다른 형태소와의 통합관계(syntagmatic relation) 및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에 기준을 두고, 「아/어」, 「가/거/나」를 분리해 낼 수 있는 A, B 형과, 결합된 다른 어형과 완전히 유착되어 이들을 분리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도 변질되었다고 간주되는 C, D, E, F 형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2. 「아/어」, 「가/거/나」의 의미의 차이를 비교 고찰하기 위한 대상은 그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고, 서로 다른 형태소의 관계에 있는 A, B 두 가지 형에 국한되어야 하며, C형과 D형은 동일 형태소의 변이형태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미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F형에서의 두 어형도 변이형태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미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E형은 「어」와 「거」의 대칭적 대립이 보이지 않으므로 역시 비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A 형과 B 형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한 두 형태소의 의미는 각각 다음과 같다.

① 「아/어」는 時相범주에 속하는 형태소로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낸다.

② 「가/거/나」는 서법범주에 속하는 형태소로서, 불변의 진리, 기정 사실, 현재 또는 과거로부터 현재에까지 지속되는 상황, 미래에 수행될 행위 등에 대한 화자의 인정, 확인 등의 판단 태도를 나타낸다.

4. 서로 변이형태의 관계에 있는 「어/거」의 교체조건은 음운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r], [y] 및 繫詞 아래에서 「가/거」의 「ㄱ」은 삭제되어 「아/어」의 형태를 취한다. 다만 ‘오다’의 어간 아래서는 일반적으로 「나」를 취한다.

參 考 論 著

고영근(1980) : 中世語의 語尾活用に 나타나는 ‘거/어’의 交替에 대하여 國語學. 9.

(1981) : 中世國語의 時相과 叙法 (담출판사).

나진석(1971) :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남기섬(1978) : 國語文法の 時制間制에 關한 研究 (담출판사)

남광우(1971) : 古語辭典 (一潮閣)

노대규(1979) : 상황소(deixis)와 한국어의 시제, 문법연구 4집.

이기문(1972) : 國語史 概說 (담출판사)

이승옥(1973) : 國語文法體系의 史的 研究 (一朝閣)

허 용(1981) :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홍윤표(1982) : 國語現象을 토대로 하는 文法史 研究를 위하여 韓國學報 28.

Cha :c(1970) :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mrie(1978) :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Lyons(1977) : Semantics. Vol. 1. 2. (Cambridge University press.)